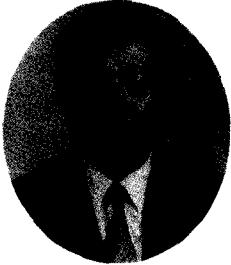




기획시리즈



김 사 일

전 임업연구원 산림환경부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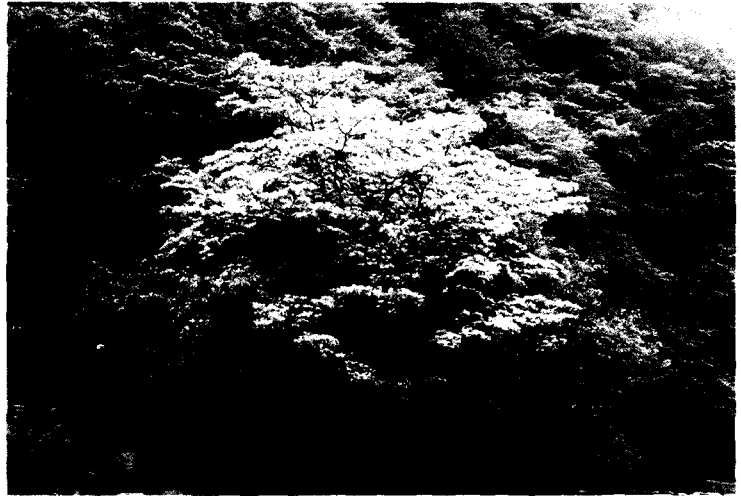
○ 종류와 생육특징

이팝나무는 우리나라 중부이남 지역에 주로 생육하고 있는 낙엽 활엽교목(落葉闊葉喬木)으로 수고 25m, 직경 50cm까지 자라고, 지리적으로는 일본, 중국, 대만에도 분포하고 있다. 어청도 및 포항에 집단 자생지가 있고, 남부지방의 마을 어귀에 정자목(亭子木)이 된 거목(巨木)도 있다.

내염성(耐鹽性) 및 내공해성(耐公害性)이 강하여 해변이나 도심지에서도 생육이 가능하고, 내음성(耐陰性), 내한성(耐寒性)은 보통이며, 내건성(耐乾性)은 약한 편이다. 생육적지는 비옥하고 토심이 깊은 사질양토의 적윤지(適潤地)가 좋다.

새로운 조경수(Ⅲ X V)

—이팝나무—



▲이팝나무 개화전경

○ 조경수로써의 활용가치

5~6월에 눈이 부실 정도의 순백색 꽃이 피어 나무 전체를 뒤덮고 있는 경관(景觀)은 마치 눈이 내려 나무 전체를 덮은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화려하고, 아름다우며, 시원하고, 깨끗한 느낌마저 들게한다. 더욱이 향긋한 꽃향기는 사람의 마음을

현혹시킬 정도로 매력적이다. 영명(英名)으로 '눈꽃나무'(Snow Flower Tree)라고 부르게 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생각된다.

이팝나무는 세계적인 희귀수종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 생육하고 있는 거목(巨木)은 대부분 천연기념물로 지정·보호하고 있다. 이상과 같이 이팝나무의 조경

〈표 1〉 이팝나무의 종류

국 명	학 명	일 본 명	영 명
이팝나무	<i>Chionanthus retusa</i> LINDLEY et PAXTON	ヒトツバタゴ	Snow
긴이팝나무	<i>Chionanthus retusa</i> var. <i>coreana</i> NAKAI	ナガバヒトツバタゴ	Flower Tree

〈표 2〉 수종별 특성

수종명	잎과 가지	꽃과 열매	분포지역	생육입지
이팝나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고 25m까지 자라는 낙엽활엽 교목. • 가지는 회갈색이며, 어릴 때 잔털이 있음. • 잎은 대생(對生)하며, 타원형 또는 난상타원형, 첨두(尖頭), 넓은 예저(銳底). • 잎의 길이 3~15cm, 넓이 2~6cm. • 잎에 광택이 있고,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음. • 어린 나무의 경우, 잎 가장자리에 2중 톱니가 있음. • 잎 표면 중조(中肋)와 뒷면 중조 밑부분에 털이 있음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꽃은 5~6월에 백색으로 피. • 화서는 원추 화서(圓錐花序)로 새가지 끝에 달리며, 화서 길이 6~10cm로 밑부분에 잎이 달림. • 소화경(小花梗)의 길이는 7~10mm로 마디가 있음. • 꽃받침과 꽃잎은 4개로 길게 갈라짐. • 꽃잎의 길이 1.2~2cm, 넓이 3mm. • 열매는 타원형이고, 길이 1~1.5cm. • 열매는 9~10월에 자흑색으로 익음. 	• 중부 이남	사질양토로서 토심이 깊고, 비옥하고, 습윤한 곳
긴이팝나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모든 특성이 이팝나무와 같으나, 잎이 피침형(披針形)인 것이 다름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모든 특성이 이팝나무와 같으나 꽃잎의 넓이가 1~1.5mm로 이팝나무보다 좁은 것이 다름. 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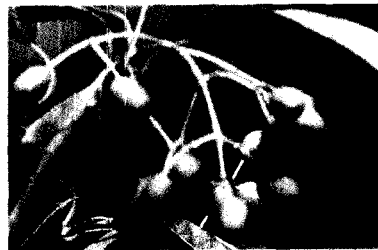
수로씨의 활용가치는 재론의 여지가 없고, 이팝나무는 거목으로 자라기 때문에 생육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식재하여야 하고 가로수, 정자목, 각종 정원의 정원수, 공원수 등 어느 곳에 심어도 좋은 나무이다.

○ 번식 및 양묘방법

이팝나무의 번식은 종자에 의한 실생묘양성(實生苗養成)외는 다른 방법이 없고, 10월경에 익은 종자를 채취하여 과육(果肉)을 제거한 후 종자의 3배 정도되는 모래와 잘 섞어서 노천 매장(露天埋藏) 또는 저온저장고(低溫貯藏庫)에 2년간 저장한다. 저장 3년



▲이팝나무 꽃과 화서 ▼이팝나무 열매



째 되는 해, 봄 파종시에 조파(條播)하고, 1~1.5cm 두께의 복토(覆土)를 하여 일반 수종 파종상 관리요령에 의하여 관리한다.

특히 이팝나무 종자는 이중휴면성(二重休眠性)종자로 2년간 종자를 노천매장 또는 저온저장을 하지 않으면, 파종 당년의 발아를 기대할 수 없고, 2년간의 종자저장 기간 중 종자관리의 불실로 종자가 변질되지 않도록 종자저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 따라서 안전하고, 확실한 양묘방법은 종자를 채취한 그 해, 가을에 묘포에 직파(直播)하여 종자가 발아 될 때까지 2년간 관리하는 방법이다.